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100교회운동 지원 지침 새로 마련

후원자 실명제 도입 · 지원교회 명의로 지원

앞으로 지원 교회에 대한 후원금은 후원자가 명실 상부하게 부담하게 되며 지원 대상도 목회자 개인이 아닌 교회로 한정하도록 하는 등 99년도 100교회 운동 지침이 새로 확정됐다.

전도위원회(위원장 최중시 장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지원

운동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첫째, 농어촌 교회 지원은 실명제로 지원하게 됐다. 작년까지는 후원자의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교회가 대신 후원금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후원자의 후원금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 후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둘째, 지원 대상은 목회자 개인이 아니라 교회로 한정하고 모든 지원 계좌를 교회 명의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목회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더라도 지원 교회가 변경되는 일은 없게 됐다. 그러나 은행이 없어 우체국을 이용해야만 하는 농어촌 지역이나 미조직

교회일 경우 다소 곤란한 면도 있으나 이를 권장하기로 했다.

셋째, 전도지원금은 매월 3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발송하고 이를 받은 지원 교회는 4째 주일 지난 월요일에 영수증을 포함한 교회 현황보고서를 서울교회로 발송토록 했다.

넷째, 행정상 정확성을 위해 전도지원금용 봉투를 제작하여 헌금자들에게 배부, 이용토록 했다.

남녀 선교 · 전도회 조직 발표

1999년도 전도위원회의 지회별 회장과 부회장이 발표됐다.(아래 표)

이번에 조직이 확정, 발표된 남선교회협의회장은 이창호 집사(모세), 오유식 집사(바울), 우지원 집사(베드로), 성춘모 집사(요한)가 맡았다.

또 여전도회협의회장은 김예환 권사(하나), 정정숙 권사(에스더), 허숙 집사(루디아), 이현주 집사(마리아)가 각기 맡게 됐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는 모세(60

세 이상), 바울(50-59세) 6개 지회, 베드로(40-49세) 6개 지회, 요한(39세 이하) 6개 지회 등 총 19개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다.

또 여전도회는 한나(60세 이상) 2개 지회, 에스더(50-59세) 6개 지회, 루디아(40-49세) 6개 지회, 마리아(39세 이하) 6개 지회 등 총 20개 전도회로 구성되어 있다.

전도위원회는 민족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30세 이상의 모든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서식 통일 · 참고자료 문서화를 위한 행정 · 재무 교육 실시

교회 서식을 통일하고 참고 자료를 문서화하기 위한 교육이 다음 주 실시된다.

교회는 각 기관 부서에서 작성하는 행사기록, 회의록 등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통일하고 서울교회 10주년사 편찬시 역사적 자료의 참고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행정 및 재무 교육을 31일(주일) 3부예배후 실시한다.

참가 대상은 각 교회학교 서기·회계,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서기·회계, 각 찬양대 대장 및 총무·서기·회계, 각 남녀 선교회 회장단 및 서기·회계 등이다. 교육 내용은 행사기록부 및 회의록 작성(강사 이용선 장로), 회계기장 및 청구서 작성 유의점(강사 박철훈 장로) 등이며 오후 4시30분까지 진행된다.

1999년도 전도위원회 조직

지도 이성득 목사

위원장 최중시 장로

서기 김태기 장로

회계 왕경래 장로

■ 남선교회 임원

부서	직책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요한	회장	김영구	최차순	미정	미정	이영훈	성춘모
	부회장	오승민	김금준	미정	미정	전승근	박태규
베드로	회장	양인수	우지원	미정	미정	김성훈	송인권
	부회장	채항석	김규태	미정	미정	신용식	김선희
바울	회장	오유식	손태기	박정수	이상호	이관규	최용길
	부회장	정무균	김현영	이동석	김승현	이남성	김관홍
모세	회장			박두영			
	부회장			이덕빈			

■ 여전도회 임원

부서	직책	제1지회	제2지회	제3지회	제4지회	제5지회	제6지회
마리아	회장	서희자	이현주	김정란	이명신	이혜선	조선영
	부회장	조숙경	김복희	김규희	박남순	김숙희	김영림
루디아	회장	최재준	김상옥	김경옥	한성옥	김명환	허숙
	부회장	이영자	김현정	박창희		이성애	송숙영
에스더	회장	이혜순	조삼원	정정숙	이영숙	장용순	김예환
	부회장	박정순	왕경희	손재경	함은희	장낙희	박경희
한나	회장		심재을			권영옥	
	부회장		최영순			이영자	

이사야 강해

모압이 사는 길

이사야 16장 1-5절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압 백성에게 이미 진노의 불을 내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 어떤 곳도 피난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압이 살길은 오직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곳 저곳으로 피난을 하며 인간적인 방법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죄 지은 모압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1. 하나님 백성을 공경하라

선지자는 모압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민족을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호의를 베풀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선지자는 그에게 어린 양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온으로 그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것이 모압이 살길임을 말씀합니다. 모압 사람들은 다윗 왕 때에 유다에 조공을 바친 일이 있습니다(삼하 8:12). 그리고 여호람 왕에게도 모압 왕 메사가 해마다 어린 양 10만과 수양 10만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왕하 3:4). 본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면 살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땅을 다스리는 분, 곧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압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섬겨야 하듯 성도는 마땅히 주의 백성을 사랑하고 공경하되 서로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2. 죄를 빨리 회개하라

선지자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피할 곳도 없는 모압 사람들을 아직 갇혀도 나지 않은 새 새끼가 보금자리째 던져진 것에 비유했습니

다. 아르는 나루는 모압의 국경입니다. 던져진 새들의 보금자리는 이리저리 텅굴다가 국경에까지 온 것입니다. 특별히 모압의 딸들, 다시 말해서 약소국가의 사람들은 어린 새 새끼와 같이 공포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살길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

신의 백성을 돕고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합니다.

'망하였고', '멸절하였고', '그쳤고'는 과거 시상으로 되었지만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멸하는 사람들은 모두 망할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은 약하고 억압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말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는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들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사 16:1-5)

이종운 목사



님께로 돌아오기 전에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위기가운데 처할 것이므로 이들에게는 회개만이 안전보장이 됩니다.

3. 지혜롭게 생각하고 행동하라

방도를 베풀라는 말은 지혜 있게 행하라는 말입니다. 모압 사람들에게는 자량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유대 사람들에게 잡힌 바 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이렇게 되기 전에 편안할 때에 모압에 피난 오는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도와주라고 외칩니다.

모압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날개 아래 거해야만 모압이 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압이 살기 위해서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곤경에 처했을 때에는 사람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은 나뭇잎 하나 가리는 햇빛 이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밤 같이 햇빛을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4. 약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라

쫓겨난 자는 유대 백성을 말하며 멸절하는 자는 앗시리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

을 받고 고통을 받는 형제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의 날에 모압이 그들을 배반하지 않고 돌보아 주면 모압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억압을 받고 망한 사람들을 천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들을 돌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장막에 왕위가 굳게 선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에게 다윗의 장막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처럼 되어야 모압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먼저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인자를 베푸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판결이 충실해야 합니다. 나라가 바로 되려면 재판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 공평을 행해야 합니다. 네번째, 의는 미루지 말고 신속히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이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신실한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99년엔 이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의 교제를

양인수(집사, 베드로 제 1선교회)

전도회와 다락방은 교회의 세포조직이라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내적으로 부흥하려면 두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특히 새가족이 교회에 빨리 적응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것과 시험에 든 성도를 격려하는 일 등은 전도회와 다락방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임직원들은 맡은 사명을 임기 동안 책임있게 수행해야 한다. 임직원들이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헌신할 때에 비로소 전도회는 활력을 갖게 된다.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낙심한 회원을 심방하여 계획된 사업을 통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한다. 행여 이름이나 가지고 자리만 차지하는 협조적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또한 30세 이상된 서울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전도회원이며 전도회 참여는 의무이며 권리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한 사람만이 전도회를 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그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심지어 주일에 교회의 다른 기관에서는 출석하는 분들조차도 전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도회 임직원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억지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도회가 교회의 지체라는 인식 하에 이제는 이러한 방관자적 구경꾼에 머물지 말고 우리 모두 자발적으로 전도회에 참여하여 전도회가 부흥되며 또한 교회가 부흥되도록 힘써야 한다.

99년 베드로 제 1선교회는 첫째 믿음의 진보, 둘째 사랑의 실천, 셋째 형제의 교제, 넷째 회원을 배가하자는 활동 목표를 세웠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산상기도회 개최,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참석 등을 힘쓸 계획이다. 사랑의 실천을 위해 농어촌 지원교회 지원, 지원교회 방문, 불우이웃 돕기, 교회건축 현장근로자 위로방문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형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방안으로 낙심회원 심방, 회원 상호간 중보 기도, 친목 강화를 위한 취미 생활 공유 등을 힘쓸 예정이다. 또한 회원 배가를 위해서는 미출석 회원 심방, 신규 등록자 참석 권유 등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한다.

사랑을 나누는 모임으로

김예환(권사, 에스더 제6 전도회)

99년에도 에스더6지회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획대로 진행토록 하여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순종하시는 회원 가정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양저 모양으로 복을 주시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으로 이루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회원들은 매월 가정 가정을 돌며 모이기를 힘쓰고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안건을 토의합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됨을 느낍니다. 매 모임에는 에스더 6지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성령충만, 기쁨 찬양, 감사가 넘칩니다.

에스더 6지회는 농어촌교회동기 1구좌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업에 보조를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건축 중인 강원도 주문진 교회의 딱한 사정을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듣고 98년부터 격월로 5만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곳 목사님의 간곡한 요청으로 올해도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직접 통화로 그곳 목사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 드렸더니 말씀을 이어가길 못하시고 목이 메이는 것을 듣고 사정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에 오히려 더 많이 돕지 못함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복음에는 빛진 자로 사랑은 나눔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전도부 주관으로 공원노방전도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코저 합니다.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이며 또한 우리를 낳은 자리로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부 주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용서를 구하고 베풀며,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을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해봅니다. 직분자, 아내, 어머니인 회원들에게 주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목상일기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시68:19)

“이처럼 어렵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말들이 들리곤 한다. 그만큼 각자가 지고 있는 짐이 무겁기 때문이다.

등산을 하다 보면 “언제 정상까지 올라가”는 심정이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만큼 산행은 힘든 것이고 더구나 험준한 산은 누구나 강행하지를 못한다. 안타깝고 화나는 일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고 가벼워지는가 하면 또 무거워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짐이 무거움의 극치에

달하여 감당키 어렵다고 판단되면 나갈 길이 없다고 선언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흔히 있다는 것

시편

68편 19절

에 슬픔이 있다. 특히 ‘내가 지고 있는 짐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더 무겁고 힘들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부르짖었다.

피할 길이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삶을 계속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대낮처럼 밝게 찾아왔는데 날마다 우리 집을 대신 저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10년에 한 번 저주셔도 고맙고 일 년에 한번만 짐을 저주셔서 가볍게 해도 그 은혜가 족한데 우리 주님은 간헐적이거나 생각 날 때나 또는 스스로 지기 어려운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저주신다고 말씀하신다. 날마다 날마다 또 날마다 우리 집은 내 어깨에 있으나 짐을 져주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큰 음성에 염치없이 나의 모든 짐을 날마다 맡겨드리라고 다짐해 본다.

위원회에 듣는다 - 찬양위원회

기도 · 연습 · 참여로 영광 돌리는 찬양을

이영기 (장로, 찬양위원장)

금년 우리교회 표어대로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위 크신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모범된 찬양대원으로 4대 실천 강령인 먼저 회개하고, 서로 위로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앞장서는 찬양위원회와 온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란한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고 21세기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찬양대와 대원들이 선교와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선교와 평화의 전이 될 서울교회 예배당 건축에 전심으로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찬양대원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년에는 찬양대원의 영적 성숙을 위한 방안으로 각 찬양대별 연습 전 합심기도와 분기별 영적 특별교육 및 기도회를 실시하고

자 합니다.

둘째로 질적 향상을 위해 연습시간을 각 찬양대별로 과감히 늘려주실뿐 아니라 평일에도 연습에 힘쓰는 찬양대로 거듭나기를 시도하며 서울음악교실에 8개 찬양대원들의 참여를 위무화하여 음악의 기초 및 전문적 음악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양적 성장을 위해 능력있는 신규 대원 발굴에 힘쓰며 각 찬양대의 파트장과 임원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새가족 중에도 음악적 인재를 선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찬양대별로 찬양대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규 임명과 사임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찬양대별로 모임을 다양하게 가져 교제와 격려의 시간을 갖도록 힘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온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예배와 찬양을 인도해 가는 99년의 서울교회 찬양대원들을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 내 경조사에 온 찬양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찬양을 통해 서로 성도를 위로하고 평화를 전하는 복된 찬양위원회와 온 찬양대원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25일(월) 장신대 세계선교연구회 학술대회에서 "교회와 선교의 상호관계" 제하의 논문을 발표한다. 26일(화)에는 한국기독교교단선교연합회 이사회 및 사단급 이상 군목회의 및 비전2020 감사예배에서 설교한다.

* 유아부는 25일(월)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 방문을 한다.

* 이반주 식사는 김동열 집사 · 최정자 권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이남호 장로 · 서창원 집사가 가정에서 쌀을 기증했다.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순례길에서

창조질서와 쓰레기

김형택 (집사, 12교구)

하얗게 눈 덮힌 은세계 설악의 하산길에서 어깨가 묵직하도록 널려진 쓰레기를 주우면서 씹쓸해 하던 한 친구가 기억난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도 둘째 날도 그리고 여섯째 날에도 "보시기에(심히) 좋았더라...생육하고 번성하라...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하늘은 구름이 없어도 부영고, 우물은 있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은 드물고, 동네의 냇물은 가축도 못 먹일 정도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충주호는 썩어가고 그 위의 동강물도 또 썩힐지도 모르는데 가두어야 하겠다고 야단이다. 시화호의 썩은 물과 김포 쓰레기 하치장의 침출수로 연안이 썩고 근해가 썩어 어선들도 조업에 심드렁하게 됐다. 이렇게 쌓이기만 하는 쓰레기 더미로 우리의 한반도와 지구의 미래가 암울할 뿐이다.

우리 예배당은 어떤가? 근년 들어 집집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처리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만, 되레 예배당은 여기 저기에 버려진 주보, 성경공부 문제지, 심지어 현금봉투들이 더 날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 볼 때가 된 것 같다. 빵조각, 수박

껍질이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을 부풀려서 뭉텅이로 김포까지 가고 세월을 더하여 바다를 썩히는 데 일조하고 있지나 않을까?

이제 땀나는 음식부스러기와 물기 있는 쓰레기는 각종 화장실 한편으로 그때그때 모으고, 우유팩은 접고 종이컵은 포개고 종이끼리, 병 따로, 재활용품과 타는 쓰레기는 그것대로 구분하여 모아지고 처리됐으면 좋겠다. 일반 시민(市民)들도 쓰레기를 챙기고 있는데, 강남 한복판 서울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천국시민(聖民)들이 똥구는 쓰레기에 관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전2020운동으로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노방전도를 나가는데 쓰레기 치우시는 미화원 입에서 입으로 혹 "쓰레기 못 가리는 교회"라는 복음 전도의 길을 막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하나님께서 "쓰레기(공해)에 '정복 당한' 인간이 '보기 싫도다' 번성을 멈추라, 생육을 그치라" 하실 지구 종말의 날이 오지나 않을까? 최소한 이 날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지도 모를 나의 악역을 어찌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며 살 생각이다.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100교회 운동을 위해
2. 1999년도 전도회 임원들을 위해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